



###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필립 K. 딕의 원작소설을 영화화한 '마이네리티 리포트'는 완전무결한 세상을 꿈꾸지만 결국 미궁에 빠지고 마는 우리 사회의 통타주 같은 영화다.

2054년 워싱턴. 범죄 예방 시스템인 프리크라임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범죄를 예견하는 예언자 3명의 정보를 통해서 살인사건 0%를 유지한다. 6년전 범죄로 인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존 앤더슨(톰 크루즈)은 이 시스템의 탑재로 자식을 잃은 아픔을 알기에 범죄예방 시스템을 누구보다 신뢰하고 열심히 일하는 인물.

그런 그에게 엄청난 혼돈이 찾아온다. 프리크라임 시스템의 예언자들이 앤더슨 자신을 살인자로 지목해버린 것. 그는 결국 추적자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바

베르트는 자신의 여덟 번째 교향곡을 작곡하면서 두 개의 악장밖에 남겨놓지 않았다. 그가 두 악장밖에 작곡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수 많은 추측과 가설이 있지만, 오늘날까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단 두 개의 악장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완결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이 오묘한 곡의 멜로디와 완성도는 많은 연주자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오늘날 슈베르트를 대표하는 작품이 되었다.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 연주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지휘자는 주재계 시노폴리다. 정신과 의사로 재직하다가 클래식 음악에 경도되어 음악을 배우고 결국 지휘자가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음악가로, 그는 미완성 교향

#### 영화 '마이네리티 리포트' 중 슈베르트 교향곡 '미완성'

#### 미궁에 빠진 세상을 위한 멜로디

꿔게 된다. 하지만 세 명의 예지자 중 그를 지목하지 않은 단 한 명의 예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앤더슨은 단 하나의 마이네리티 리포트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SF물로서 액션과 스릴까지 가미되어 있기에 긴박감 넘치는 일렉트릭 사운드 트랙이 넘칠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의외로 많은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 차있다. 바흐의 '우리 기쁨이 되신 예수'를 비롯하여 차이콥스키의 '세레나데', 그리고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까지 중요한 장면 곳곳에 명 클래식 선율이 배치되어 영화의 몰입과 완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이 작품의 주요 테마로 사용되면서 결국 완성된 것 같지만 미완성일 수밖에 없는 인간 사회의 미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당시 교향곡의 양식은 4악장으로 쓰여지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상하게도 슈

곡의 오묘한 멜로디와 화성을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한다.

때문에 시노폴리가 연주하는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슬프지도 기쁘지도, 그렇다고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지 않는다. 오페라 지휘를 하던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켜 세상을 떠난 가장 드라마틱한 주검의 주인공이기도 한 시노폴리의 이런 독특한 해석을 앞으로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기만 하다.

또 하나의 추천할만한 연주는 독일의 거장 권터 반트의 해석. 그는 슈베르트 음악의 본령이 실내악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듯, 아주 세밀하고 투명하게 이 곡을 연주한다. 마치 현악사중단이 연주하는 것처럼 오케스트라를 컨트롤하는, 오랜 세월을 지휘대 위에서 보낸 노대가의 해안이 묻어나는 연주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니스트)



인도네시아 팀 '무기댄스'

## 끊임없는 창작 열정... 환상의 무대를 보라

### 17~22일 '아시아 예술극장 창작 레지던시-광주'

#### 영국 등 세계 8개국 90여명 예술가 참여... 무료 관람

오는 2014년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완성시키는 핵심 시설이다. 그 중에서 2000석 규모의 가변형 극장인 아시아예술극장은 전당을 대표하는 공간 중 하나. 공연장의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극장에서 '상연'될 작품들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국제 공모 등을 통해 '아시아예술극장'에서 공연될 작품들을 발굴하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아시아 예술극장 창작 레지던시-광주'는 각종 공모에 선정된 예술가들이 광주에 머물며 워크숍 등을 통해 서로의 작품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며 아이디어를 나누고, 시민들에게 작품을 공개하는 행사다.

올해는 영국 등 전 세계 8개국에서 모인 90여명의 예술가와 기획자가 참여, 지난 13일부터 광주에서 워크숍을 진행중이며 17일~22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시연, 공개 워크숍, 프리젠테이션을 개최한다.

올해 창작 레지던시에서는 2012 아시아예술극장 공연작품(안) 국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3작품과 2010년과 2011년 발굴된 작품의 개발 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직접 작품을 볼 수 있는 프로젝트는 모두 세편이다.

올 공모에서 선정된 한국의 '탱크 탱크'가 시연하는 '구리거울의 섬광'(19일 오후 4시~7시30분)은 중앙아시아의 유산인 '구리거

울'을 모티브로 역사와 삶에 대한 성찰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지난해 국제공모 선정작이었던 인도네시아 팀 '무기댄스'의 'Ejecting Human'(20일 오후 7시30분)은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예술가들의 공동작품. 인간의 출산 과정이 기계화되어감을 비판하며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연스러운 문화의 재창조를 성찰하는 무용 중심 프로젝트다.

2010년 국제 공모 발굴작인 공연창작집단 '뛰다'(22일 오후 4시)의 'Bahuchara Mata-The 3rd SEX'는 인도의 제 3의 성인 hijira 커뮤니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보편적 성의 실체를 작품으로 표현해 냈다.

20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전시실에서는 올 선정작인 태국의 '사라웃', 벨기에 팀 '카브라 vzw'의 'This Place' 태스트그룹의 '태식, 퍼폼(3)'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된다.

'태식, 퍼폼(3)'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예술과 게임, 창작과 연주 등이 공존하는 오디오-비주얼 공연이며 '사라웃'의 작품 'Wish, lies, and dreams'는 어린이, 장애인, 예술가들의 꿈과 소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열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판타지 비주얼 아트 프로젝트다.

그밖에 21일에는 2012 지정 공모 선정작으로 만신 김광희의 삶과 한국 전통무속 신앙의 상상력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다시



한국팀 공연창작집단 '뛰다'

쓴 박찬경 감독의 다큐 '갈릴갈' 상영과 감독과의 대화가 마련된다.

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중연습실에서 벨기에 팀 공개워크숍이 열리며 무기댄스, 공연창작집단 '뛰다'와 함께 하는 예술가의 대화(19일 오후 2시) 등도 마련돼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문의 02-764-654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굿+판' 신명나게 놀아볼까

#### 황토제 '굿이야, 판이라!' 연주회... 21일 광주문예회관

'흥겨운 굿판의 매력을 고스란히 무대에서 보여드립니다.'

국악 실내악 그룹 황토제(대표 이왕제) 정기연주회가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굿이야, 판이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실내악 합주 '판노리', 거문고 셋집곡 '넉풀이', 노래극 '박타령'과 '상사몽', '타악과 실내악을 위한 동해안 별신굿' 등을 들려준다.

특히 김성제(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단원)씨 곡 '진도셋집굿과 실내악-홀림소리', 신주연씨 곡 '경기도 도당굿과 실내악-모리'는 이번 연주회를 위해 위촉한 곡이다. 지난 1999년 1월 젊은 국악인들이 뜻을 모



아 만든 '황토제'에는 현재 김혜정·박혜민·전미향·이정숙·강아라·윤임현·김윤아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타악주자 김광숙·안연섭씨가 객원으로 참여했다. 문의 010-9212-54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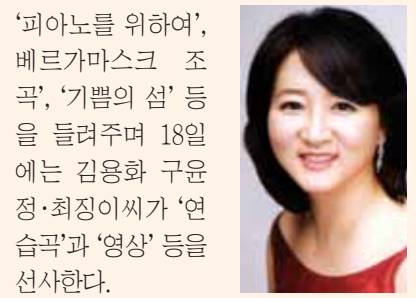
### 드뷔시 피아노곡을 감상합니다

#### 탄생 150년- 전남대 피아노연구소 17~19일 콘서트

올해는 인상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꼽히는 드뷔시(1862~1918)가 탄생한 지 꼭 150주년이 되는 해다. 멘델스존과 쇼팽 탄생 200주년 기념 교수음악회를 개최했던 전남대 예술대학 피아노연구소(소장 신수경)가 이번에는 드뷔시의 피아노곡만으로 음악회를 준비했다.

지난 13일 여수 예술마루에서 공연을 진행했던 이들은 17~19일 오후 7시 전 남대학교 예술대학 예향홀에서 콘서트를 갖는다.

17일에는 임리라·이인미·이윤희·신수경·조현영씨가 '두개의 아라베스크',



신수경

'피아노를 위하여', 베르가마스카 조곡', '기쁨의 섬' 등을 들려주며 18일에는 김용화·구윤정·최정아씨가 '연습곡'과 '영상' 등을 선사한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드뷔시의 대표곡인 '전주곡'을 이재완·박근지·박의혁·김연·이현주·박선화씨가 들려준다. 문의 062-530-01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이태리가구 40% OFF ~ SALE**

NAVER **홍스페이스** 신상품 소파 입고! www.hong79.com(홍천구닷컴)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장동도터리) 가구빌딩 400평 ☎1899-0240 2012 결산 빅세일 10월25일까지